

지면안내

02 2020학년도 학사제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보도

04 색다른 색(色)에 빠지다
문화

05 “소통과 혁신으로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창원 신임 총장 인터뷰
사람사

08 제48기 수습기자 모집
광고

행사 취소, 학사일정 연기, 폐쇄... 천재지변으로 위축된 2020학년도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된 교내 출입통제를 위해 교직원이 정문에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여파로 개강 전후 행사 및 학사일정이 대거 변경되고,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폐쇄되는 등 본교가 학기초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 ▲새내기 배움터 ▲입학식은 대체 행사나 연기 없이 전면 취소됐다. 당초 2월 20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시 오티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한성 e-cl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학위수여식은 2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8월 후기 학위수여식으로 연기됐다. 학위기와 상장은 2월 21일부터 전공별 행정사무실과 학생장학팀에서 각각 수령하도록 했다.

1학기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대동제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현재 서울권 내 거의 모든 대학이 1학기에 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1학기 대동제를 2학기 개강

파티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회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개강 2주 연기 ▲중간고사 2주 연기 ▲종강 1주 연기 등 주요 학사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개강 후 2주 동안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3월 30일부터 등교하게 된다. 다만 실습 위주의 강의는 동영상 강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대면 수업기간에 집중이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정미(학사운영팀) 팀장은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필요한 장비 구입, 기술 지원, 수업자료 제작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상빌리지 ▲우촌학사 ▲삼선학사 등 모든 기숙사의 입주 시작도 기존 2월 28·29일에서 3월 27일로 미뤄진 상태다. 대학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국인 기숙사에 입주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인 1실을 배정해 격리시켰고, 해당 외국인 기숙사에는 매주 1회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교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5일부터 정문과 우촌관 중문을 제외한 모든 진입로와 학교 내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또한, 교내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대한 검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증 또는 사원증을 지참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상빌리지 ▲외국인 기숙사 ▲학생식당 ▲도서관 입구 ▲상상관 입구 등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문에는 자가 진단실을 개설해 학내구성원들의 자체적인 체온검사와 선별검사지 작성을 가능케 했다.

한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강 연기 및 비대면 강의, 학교시설 폐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 학기와 같은 등록금을 냈음에도 학교 시설을 일부 이용할 수 없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간담회를 요청해, 3월 19일 상상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이창원 신임 총장, 새출발을 알리다



지난 2월 1일, 본교 제10대 총장인 이창원 신임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본교 총장직을 역임할 예정이다. 그는 인사말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공동체적 의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겠다”며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 협력해 세상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의 취임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영상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영상은 오는 17일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기자사령

- | | |
|-------|-------------|
| 임 | 최성훈(인문 4) |
| 부편집국장 | 김준수(사회과학 1) |
| 수습기자 | 송채은(패션 1) |
| 면 | 이기연(인문 2) |
| 부편집국장 | 정명아(인문 3) |
| 부장기자 | 정수민(인문 3) |
| | 심상우(기계전자 2) |




꿈을 향한 점은 도전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2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으로 서류 제출해야 접수 완료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한성대 학군단 02-760-4178



2020학년도 학사제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학점이수체계 변경 및 창의융합과정·집중이수제 신설, 전(부)과 과정·학사경고 규정은 완화돼

2020학년도부터 새로운 학사제도가 도입된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총 7가지로 ▲16학번 이전 학부(과)제 학생(이하 16학번 이전 학생)들의 전공교육 학점이수체계 ▲16학번 이전 학생들의 교양교육 학점이수체계 ▲외국인 편입생의 학점이수체계 ▲창의융합과정 ▲집중이수제 ▲일반 전부(과) 규정 ▲학사경고 제적 규정 등이다.

16학번 이전 학생 전공 총점 통일

트랙제로 변경한 16학번 이전 학생들은 종전에는 제1·2트랙 모두 ▲전공기초 ▲전공지정(트랙필수) ▲전공지정(취·창업) ▲전공선택의 취득학점이 각각 달랐지만 이제는 교과구분 없이 총 39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대해 김시원(학사기획팀) 팀원은 “올해부터 전 학년에 트랙제 커리큘럼이 도입됨에 따라,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학부(과)제에서 트랙제로 변경했을 때 각각 들어야 하는 학점으로 부담감이 컸다. 또한 트랙제 특성상 1,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좁았다”며 “교과구분을 없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와 필수 제외 교양 총점 통일

한편 학년마다 다른 교양교육 이수체계도 변경됐다. 2019학년도까지 16학번 이전 학생들은 ▲토대 ▲한성인재 ▲소양 ▲핵심 ▲자율 교양의 과목당 이수학점이 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토대, 한성인재,

2020학년도 학사제도 변경

1 16학번 이전 전공교육 학점이수체계 변경

트랙	교과구분	이수학점	
		종전	변경 후
1트랙	전공기초	3학점	39학점 (교과구분 없이 전공 총 학점으로 이수)
	전공지정(트랙필수)	18학점	
2트랙	전공지정(취·창업)	3학점	
	전공선택	18학점	

2 16학번 이전 교양교육 학점이수체계 변경

교양 교과 구분	이수학점					
	06-09학번		10-15학번		16학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기초, 필수	12	12	10	10	12	12
토대, 한성인재, 소양, 핵심, 자율	14(18)	12	14(18)	12	12(16)	12

3 외국인 편입생 학점이수체계 = 일반 편입생 학점이수체계

외국인 편입생 학점이수체계 신설

4 창의융합과정 이수

5 집중이수제* 수업의 기간 및 교과목 확대운영

6 학기당 평균 취득학점 15학점, 총 평점평균 2.0 이상

개정 과정에서 해당 조건 삭제

7 학사경고 통산 3회 시 제적

학사경고 연속 3회 혹은 통산 5회 시 제적

* 집중이수제: 기존 15주간 운영했던 수업을 8주에 마칠 수 있는 제도

소양, 핵심, 자율 교양 교과목을 ‘일반교양’과 ‘선택필수교양’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06학번부터 16학번 학생들은 이 중 1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기초, 필수 교양 이수 학점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학사제도 개편에 대해 김 팀원은 “트랙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불만 해소 및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편입생 취득학점 완화

이외에도 외국인 편입생의 학점

이수체계가 변경됐다. 수정 전, 외국인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학점을 포함해 16학번 기준 130학점을 취득해야 했다. 이는 국내 일반편입생과 동일한 학점이수체제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본교와 국외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와 학사제도 차이로 학점 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전적대학의 학점인정과정을 없애고 취득학점 기준을 완화했다. 2학년은 융합전공 및 단일전공을 선택하면 97학점, 3학년은 융합전공의 경우 78학점, 단일전공의 경우 6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창의융합과정 이수’ 부여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 분야에 핵심 ICT 기술을 더한 ‘창의융합과정’의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된 창의융합 교과목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졸업 시, 해당 교과목 중 9학점을 이수하면 성적증명서에 ‘창의융합과정 이수’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단계별로 향상돼, 2021학년도에는 12학점, 2022학년도에는 15학점을 이수해야 ‘창의융합과정 이수’가 부여된다.

집중이수제, 일부 전공과목까지 확대

한편, 교과목 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수 가능한 과목을 단기간에 수강하는 ‘집중이수제’도 부분 개편됐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돼 일부 교양과목만 1~2주 가량 단기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집중이수제의 교과목과 함께 8주 과정으로 확대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집중이수제는 기존 일부 교양과목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일부 전공과목에까지 확대 운영된다. 한편, 집중이수제 과목의 성적처리하는 제한적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A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은 50% 이내이고 B 학점 취득 가능한 학생에는 제한이 없다.

전부·전과, 취득학점과 총 평점 평균의 조건 삭제

이외에도 ‘일반 전부(과) 규정’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종전에 ▲학기당 평균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 ▲총 평점 평균이 2.0 이상 모두를 충족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 개편 과정에서 취득학점과 총 평점 평균의 조건이 삭제됐다. 이는 입학 당시 지원학과와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학과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득학점 및 성적 등의 제약으로 전부·전과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다.

학사경고 제적 규정 변경

또, ‘학사경고 제적의 규정’에서 학사경고 부분이 변경됐다. 해당 규정에서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부분이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학사경고 시 제적’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순자(학사운영팀) 부장은 “타 대학의 학사경고 제적 규정을 살펴본 결과 많은 대학이 변경된 내용과 비슷하게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시기인 1학년인 경우가 많다. 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단절시키기보다는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코로나19가 바꾼 오티 일정... 수시 오티는 그대로 진행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의 일정이 소폭 변경됐다. 지난 1월 16일에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및 디자인대학의 수시 오티가, 17일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및 IT공과대학의 수시 오티가 이뤄졌다. 그러나 2월 20일에 예정됐던 정시 신입생 오티는 온라인 오티로 대체됐다.

먼저 수시 오티 순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총장 개회사 및 환영사 ▲동아리 축하공연 ▲트랙제도 안내 ▲장학 안내 ▲국제 교류프로그램 소개 ▲학사 일정 안내 ▲경품 추첨 및 트랙 탐방 관련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 각 트랙은 상상관 지하 2층에 부스를 설치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트랙 안내 ▲정규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등을 설명했다. 교내 행정부서는 ▲CTL ▲국제

교류 ▲취·창업 ▲장학 부스를 마련했다.

이후 신입생들은 재학생들의 통솔 하에 ▲학술정보관 ▲상상파크 ▲상상빌리지를 방문 및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대년(인문 1) 학생은 “처음 참석한 학교 행사라 긴장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해당 트랙을 직접 경험한 선배가 1학년 교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오티에 참여하지 못한 정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온라인 오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모든 신입생에게 영상과 PPT 등으로 대학생활을 안내 및 교육하고, 단과대학별 트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들이 상상홀에서 학교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본교,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돼

본교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주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을 이해시키고 관련 분야로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본교는 지난달 1일부터 13개월간 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 일환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거버넌스’ 과목이, 2학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진로탐색 과목’이 자율교양과목으로 개설된다. 이 중 해당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성여자고등학교에 견학해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교는 국제개발협력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여름방학 중 몽골 울란바토르로 파견해 다양한 ODA(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 지원활동) 사업현장 체험 및 ODA 파트너 대학과 연계된 현장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책임자인 오종근(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는 “사업 공모 당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식으로 강의를 기획했다”며 “이것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eo53493@gmail.com

국제봉사단 ‘해봉태봉’ 해단식 열려

지난 2월 20일, 미래관 B103호에서 본교 국제봉사단 28기 ‘해외봉사 태국봉사(이하 해봉태봉)’ 해단식이 진행됐다. 본 행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18일까지 URU(태국 우따라타랏차팻대학) 병설 초등학교에서 국제봉사를 진행한 해봉태봉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동환 단장, 김일환 부단장, 유우환 국제교류원장, 해봉태봉 단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장 및 국제교류원장 인사말 ▲봉사활동 영상 시청으로 구성됐다. 인사말에서 김동환 단장은 “봉사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이라며 “국제봉사 경험을 앞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해단식에 참석한 이미지(경영 4) 해봉태봉 부팀장은 “해봉태봉은 인생에서 가장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고 온 마음으로 다가갔던 활동이었다”며 “언어, 환경, 국적이 다른 아이들에게 내 노력으로 일구 낸 무언가를 전달해 얻는 뿌듯함이 어떨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단식은 단체를 해산한다는 뜻이지만, 나에게 봉사로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들을 얻게 되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채은 기자 375robin@gmail.com

끊이지 않은 트랜스젠더 이슈, 찬반 논쟁은 현재진행형

최근 온·오프라인이 '트랜스젠더' 이슈로 들쭉였다. 먼저 1월 16일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성전환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합격한 A학생(22)의 사례가 보도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대법원은 젠더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트랜스젠더의 권익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변희수 하사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대에 복귀했다. 육군은 그가 복귀하자마자 의무조사를 시행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을 이유로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또한, 육군은 변 하사가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 판정과 함께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소식이 군 인권센터는 변 하사와 지난달 22일에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전역에 대한 철회를 지지했다. 이들은 "육군이 변 하사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신체장애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변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시민센터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라며 강제 전역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상혁(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변 하사의 사건은 대한민국 창군 이후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강제 전역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심신장애로 인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숙명여대 신입학 모집에 합격한 A학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고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

A학생의 입학 예정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달 4일에는 숙명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6개 여대의 21개 단체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대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크게 해하는 것이고 남성의 성별 변경 권리를 여성의 기본권리에 우선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지난달 2일,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제3자가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각종 SNS에는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과 '#합격축하해요_우리가여기있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법원에서는 성전환 희망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지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3월 16일부터 개정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에는 성별을 바꾸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생식능력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 성장 환경 진술서 및 인우 보증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서류들은 참고용으로 바뀐다. 이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변경된 내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개정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국방, 교육계, 사법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전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트랜스젠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랜스젠더

찬반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찬성과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차별 없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책, 대학가를 지킬 수 있을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대학가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개강과 동시에 전국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이합집산(離合集散)하고, 7만여 명이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여, 감염증의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대학의 자체적인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체 강의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79개교(92.7%)가 개강을 연기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에 격리시켰다. 이외에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강 일정의 추가 연기가 논의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추가 개강 연기 대신 대체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2일 각 대학에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일정 권고안」을 통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재택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제적 조치 없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학이 자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상신(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재택수업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는 임시방편인 셈이다.

한편, 많은 학생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학생회네트워크가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14,7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49.4%)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40.9%) ▲기숙사 입사 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거 불안(16.2%)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중복응답 포함). 또한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환급'을 요구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게시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의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배재민(카이스트 3) 학생은 "학생 간 접촉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강의가 최선임을 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의의 진행과 앞으로의 학사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 미지수라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교육부의 빠른 대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학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항상 늦었다"며 "교육부가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한 발 빠른 대응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과 대체 수업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교육부가 과연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TALK

희대의 금융사기를 펼친 라임자산운용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켰다. 논란의 중심에 선 라임은 국내 자산에 투자된 6,200억 규모의 펀드에 대해 '플루토 FID-1호(이하 A)'와 '테티스 2호(이하 B)'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달 '플루토 TF-1호(이하 C)'와 'Credit Insured 1호(이하 D)'에 대한 추가 환매 중단이 이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한 펀드의 환매를 받으려 가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왜 라임의 환매 중단이 '희대의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것일까?

라임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이러한 라임의 운영방식은 모자(母子)펀드의 구조를 이룬다. 이는 투자자가 자(子)펀드에 투자하면 자펀드는 해당 자금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는 해당 투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해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라임의 금융사기 의혹이 불거진 주원인은 '유동성 하락'에 있다. 즉, 라임의 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 부실이 생겨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자금이 바로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라임은 네 가지 모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불완전판매 의혹도 네 가지 모펀드에 모두 제기됐다. 이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수법이다. 이에 대해 고동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펀드 판매사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라임에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에서 '폰지사기' 논란이 발생하자 라임의 금융사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폰지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에게 해당 자금이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융사기다. 소위 '돌려막기'라 불리며,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행위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해외 투자 펀드의 자산이 부실화되자 운용사가 이를 정상적인 채권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돌려막기 한 것"이라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라임에게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분쟁조정을 위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검찰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판매사와 라임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100% 손해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여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판매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매: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이는 것

*펀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운용하는 금융상품

안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색다른 색(色)에 빠지다

〈편집자주〉

“무슨 색 좋아해?”라는 질문을 받은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과거에 비해 ‘색’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걸까? 대답은 NO! 더하면 더했지, 관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예쁜 색감을 연출하기 위해 사진을 보정하고, 색에 갖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등 색은 그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늘어난 관심만큼 바쁜 곳이 있으니 색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업, ‘팬톤(PANTONE)’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올해의 색을 선정하고 우리에게 방향성까지 제시한다. 매년 디자인 트렌드와 색에 얽힌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올해의 색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의 색은 우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올해는 어떤 색이 재패할지 궁금하다면 다음 기사를 주목하자.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우리의 색은 ‘classic’ and ‘blue’

매년 12월, 패션·뷰티·인테리어 등 다양한 업계에서 주목하는 발표가 있다. 바로 미국 색채 연구소 ‘팬톤’이 2000년부터 매년 12월마다 발표하는 ‘올해의 색’이다. 올해의 색은 평소 색에 무심했던 사람들이 색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 올해의 색을 선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 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석현(중앙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교수는 “색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문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며 “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의 색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색이 유행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색들도 올해의 컬러로 선정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으로 탈바꿈하곤 한다. 2015년 올해의 색이었던 일명 마른 장미색, ‘마르살라’는 아직도 코덕(코스메틱 덕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다.

몇 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파스텔 분홍색과 하늘색의 조합 역시 2016년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로즈쿼츠’와 ‘세레니티’다.

그렇다면 2020년 한해를 이끌 색은 무엇일까. 2020년 올해의 색은 해질녘의 하늘을 연상케 하는 ‘클래식 블루’다. 리트리스 아이스먼(팬톤) 이사는 “견고한 클래식 블루 빛깔은 ‘곳곳함’과 ‘자신감’을 나타내며,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깊게 생각하도록, 시야를 넓히도록, 소통의 물꼬를 트도록 용기를 북돋는 색”이라고 말했다. 즉,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쉽게 공감을 이끌어 내며 우리의 마음에 편안한 컬러로 각인되는 색이다. 2010년대의 문턱을 지나 새로운 10년, 2020년대로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곤 하지만, 이쯤되면 그냥 블루도 아니고 왜 ‘클래식 블루’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바로 평범했던 블루에 ‘대표적인, 고전적인’이라는 의미의 ‘클래식(classic)’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보다 안정적이고 평온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올해의 색이 왜 코랄이 아닌 ‘리빙 코랄’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 코랄에 ‘리빙(living)’을 붙여 생명력을 붙여넣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블루는 성별과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기 좋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색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라미(RCG컬러연구소) 컬러리스트는 “블루 색상은 언제든 대중화될 준비가 된 색이다. 따라서 올해의 컬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란 ‘블루’ 속에 헤엄치고 있어

2020년 올해의 색으로 클래식 블루가 선정되면서 소비자들도 한층 분주해졌다. 클래식 블루를 남들보다 더 의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다.

먼저 가장 ‘핫’하게 블루를 즐기고 있는 곳은 바로 뷰티 업계다. 블루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아이유부터 방탄소년단의 지민까지... 소위 ‘힙’한 연예인들이 너나할 것 없이 블루 계열의 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박수빈(삼짱파) 헤어디자이너는 “원래 블루는 너무 뒤틀다는 느낌이 강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블루 계열을 찾는 사람이 독보적으로 많아졌다”며 “블루 색상이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다 보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루는 너무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소개한다. 가장 쉽고 편하게 블루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지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거주장스러운 것 말고 산뜻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작은 소지품을 활용해



사진 제공 : 박수빈(삼짱파)



사진 제공 : 이지영

▲클래식 블루 색상으로 염색한 머리. 차가운 느낌과 발랄한 느낌 모두 낼 수 있다.

▲이지영 씨의 리빙 코랄색 핸드폰케이스. 그녀는 곧 케이스를 클래식 블루 색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보자. 평소 다양한 핸드폰 케이스를 모으고 있다는 이지영(23) 씨는 “원색의 케이스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올해의 색이 나오면 맞춰 구매하곤 한다”며 “무채색의 옷을 즐겨입는 내가 유일하게 포인트를 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작은 소품을 활용해서 트렌드를 즐기는 중”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블루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기도 한다. 이게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이미 서점은 블루 색상으로 가득하다. 최근 블루 계열의 책표지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면서, 서점 ‘아크엔북’은 표지가 클래식 블루로 이뤄진 책들뿐만 아니라 한 벽을 채우기도 했다. 아크엔북에 방문한 윤정우(25) 씨는 “클래식 블루 색상의 책 표지들을 보니 괜스레 한 번 더 눈이 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처럼 선정된 올해의 색은 한 해의 색 트렌드를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순하고 맛있게 우리의



▲아크엔북의 한 진열장. 클래식 블루 색의 책만 진열해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일상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 색에 무심했던 당신도 시나브로 색다른 색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제공 : 노루페인트

▲팬톤이 고유번호를 부여한 색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된다. 사진 속 클래식 블루의 고유번호는 19-4502이다.

역대 올해의 색 한눈에 보기

2020 PANTONE 19-4052 TCX Classic Blue	2019 PANTONE 16-1546 TCX Living Coral	2018 PANTONE 18-3838 TCX Ultra Violet	2017 PANTONE 15-0343 TCX Greenery	2016 PANTONE 13-1520 TCX Rose Quartz	2016 PANTONE 15-3919 TCX Serenity	2015 PANTONE 18-1438 TCX Marsala
---	---	---	---	--	---	--



"소통과 혁신으로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창원 신임 총장 인터뷰

지난 2월 1일, 한성대학교의 4년을 새롭게 이끌어 갈 제10대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본지는 이창원 신임 총장을 만나 학교 운영 방침을 들어봤다. 이창원 총장이 그린 한성대학교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취임 초반부터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창원 총장(이하 이) :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사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성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개강 이후에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수업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본다. 수업의 품질이 유지되는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대학본부의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집행부서와 지원조직 간의 역할을 분담했는데, 요즘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본부에 대외협력처와 연구처를 신설했는데, 대외협력처는 학교 발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처는 교수님들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임기 중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가 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 평가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적절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3주기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3주기 평가는 대학교육을 혁신시키고 교육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본교 입학 전·후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Q. 이번 학기부터 트랙제 커리큘럼이 전 학년에 도입된다. 트랙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각해둔 것이 있는가?

이 : 현재의 트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교육혁신으로까지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목의 풀(pool)을 늘리면서 학점 체계도 다원화하고, 역량과 성취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법과 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이 겪는 수강신청의 불편함은 장바구니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Q. 이밖에도 교육과정을 위해 계획해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이 : 학생들의 기본적 소양과 전공 이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콘텐츠를 확대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대학과의 공동 학위제도,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체계 또한 강화하고자 한다.

Q. 그렇다면 현재 한성대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 현재 모든 대학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입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총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재정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수익 모델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교육사업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대학발전기금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것이다.

Q. '소통으로 여는 혁신, 혁신으로 여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이 인상 깊다.

이 : 해당 문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과 '혁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소통 없이 이뤄질 수 없다. '내일은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통 기반의 혁신을 이룩해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구성원들과 함께 열어가 고자 한다.

Q. 마지막으로 신임 총장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존중과 신뢰의 총합이 곧 한성대학교의 사회적 위치이자 무게라고 생각한다. 혁신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혁신의 결과 즉, 그 과실이 구성원 모두에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나눠지는 선순환으로

이창원 총장 약력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조직학 박사
- 경력**
- 2020.02 한성대학교 제10대 총장
 - 2019.02 (사)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 2018.05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 2018.04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8.0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2016.05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 이사장(관선)
 - 2015.05 입법고시 출제위원
 - 2014.11 한성대학교 교수처장
 - 2013.03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2012.06 학교법인 폴리텍 법인이사
 - 2010.04 한성대학교 기획협력처장
 - 2008.01 (사)한국조직학회 회장
 - 2007.01 (사)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 2005.03 한성대학교 기획협력처장
 - 2004.10 한성대학교 디지털중소기업 대학원장
 - 2004.06 행정고등고시 출제/채점 위원
 - 1999.11 사법/군법 및 5급 시험위원회 위원
 - 1983.12 럭키금성그룹(現 LG그룹) 기획조정실

이어진다면, 한성대학교는 분명 발전할 수 있다.

한성대 구성원들이 스스로 한성대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은 한성대가 소통을 통해 혁신을 달성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Tel. 02)760-4186
✉ E-mail. hansungnew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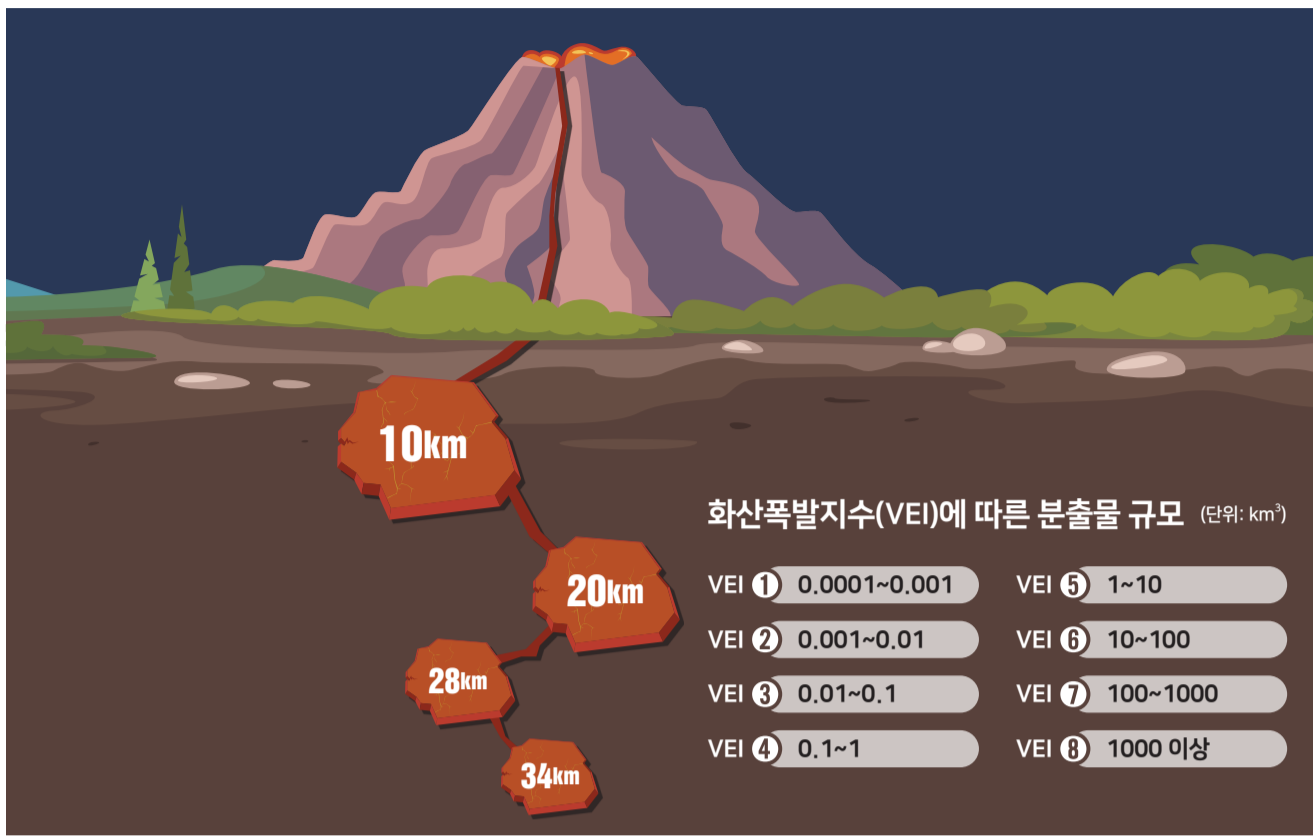
분화 직전 백두산, '나 지금 떨고 있니?'

최근 영화 '백두산'이 개봉하면서 백두산 분화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백두산 분화 예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화 징후가 지속적으로 관측돼 수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들이 백두산 분화를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꿈틀대는 마그마, 뜨거워진 백두산

전문가들이 백두산 분화를 예견하는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 수년간 발생한 전조 현상에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전조 현상은 '화산성 지진'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화산성 지진은 마그마의 상승과 동시에 암석이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시작되는 지진이다. 지하 깊숙이 뚫고 있던 마그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면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때 이를 누르고 있던 압력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고압일 때의 기체는 마그마 속에 녹아 있지만,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져 기화돼 분리된다. 가벼워진 기체들은 마그마 돌레의 암석을 부식 약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잦은 화산성 지진을 야기한다. 이같은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은 월평균 10회 발생했지만,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평균 약 250회까지 발생했다. 작년에는 화산성 지진의 발생이 총 35건으로 비교적 잦았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발생 빈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화산성 지진과 더불어 백두산 주변 지면에서 배출되는 '유독화산가스'의 관찰도 백두산 분화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윤수(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백두산 천지 수면의 지하에는 4개의 마그마방이 있다. 그 깊이는 차례대로 10km, 20km, 28km, 34km다.

교수는 "최근 자주 관측되고 있는 백두산 땅속 동물들의 이동과 고산목(말라죽은 나무)의 발견은 전조 현상 중 하나"라며 "이는 마그마방(지하에 많은 양의 마그마가 고여 있는 곳)에서 분리돼 지표로 새어 나온 유독화산가스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백두산 지표면이 변화한 것도 전조 현상으로 꼽힌다. 2002년 초에 마그마의 움직임이 급증하자 2005년에는 천지에 가까운 지표면이 약 7cm까지 솟아올랐다. '운천수'의 온도도 상승했다. 백두산 상류계곡에 위치한 주몽온천의 수온이 2011년에 전년도

보다 3°C 높은 77.7°C를 기록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전조 현상들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며, 이것이 언제 분화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큰 규모의 화산분화 사건은 1~2년 만에 1회, 소규모 분화 사건은 100년에 최소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 시점은 마지막 대규모 분화로부터 1000년, 마지막 소규모 분화로부터 100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분화의 피해, 다양하게 흩뿌려져

최근 백두산이 가장 크게 분화한 것은 서기 946년에 발생한 화산폭발지수(VEI) 7의 '밀레니엄 대분화'다. 당시의 분화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부식과 화산재 등 분출물의 양은 100~150km³였을 정도였다. 이때 발생한 화산분출물은 한반도 전체를 약 0.5m 두께로 깔고 두 배 정도 덮었다.

이에 윤성호(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당시 분화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화쇄류(화산에서 분출한 화산

쇄설물과 화산 가스의 혼합물이 빠르게 흐르는 일의 확산 범위가 반경 80km 이내의 모든 동식물은 다 죽었을 것"이라며 "이 분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금, 백두산이 밀레니엄 분화처럼 크게 폭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하면, 화산재 기둥인 '분연주'가 하늘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화산재 구름을 형성하고, 하늘을 가리게 된다. 그 후 분연주와 화산재 구름에서 화산재가 낙하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화산재는 호흡기 질환자를 속출시키며 항공기의 운항로인 성층권까지 도달해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화산이 분화하면 백두산 천지의 물과 화산 분출물이 뒤섞인 '라하르'도 발생하게 된다. 라하르는 화산 분출로 쌓인 화산쇄설물이 물과 뒤섞여 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칼데라(화산 폭발 후 빈 마그마방으로 인해 화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생긴 분지) 분화구를 둘러싼 외륜산을 부수게 된다. 이어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흘러내리게 되며, 대홍수 발생으로 이어져 주변 지역을 초토화 시킨다. 이외에도 백두산 분화는 고온 화쇄류의 발생, 화산가스의 방출, 용암류의 발생 등 근접화산재해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백두산 분화의 피해 규모는 동북아시아로 확장될 만큼 굉장히 넓어 인도주의적 측면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백두산 연구에 국제사회가 동원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영경 기자 dksgrud24@naver.com

최기자의 사담

갈등 넘어 균등한 나라 꿈꾼 조소앙

"이번 정류장은 '삼선교 한성대학교 조소앙 활동 터입니다.'"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버스 안내 방송이다. 방송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조소앙(1887~1958)'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광복 후에 삼선동 자택에서 균등한 나라를 꿈꿨다.

조소앙은 양반가였던 함안 조씨 가문의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인 조성통에게 유교적 소양을 교육받았고, 이는 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밑바탕이 됐다. 그는 신학문에 필요성을 느껴 유학을 준비했고 그 결과 황실특비유학생에 선발돼 일본 유학생이 됐다.

조소앙은 일본 유학생 시절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한 것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동계사-대한독립의군부 등을 거쳐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이후 그는 임시정부의 헌법 격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작성해 대한민국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임시정부 외부부의 일원으로서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소련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며 독립의교황을 펼쳤다.

조소앙은 1930년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의와 당장에서 '삼균주의'를 주창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에서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에 입각해 그는 국민들에게 보통선거제로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주고, 토지국유제로 경제적 균등을 주며, 의무교육제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좌익이 강조하는 '평등'과 우익이 강조하는 '민족의 독립'을 실현해 민족간의 균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승(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는 "삼균주의는 남북이 분단되고 좌·우익의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민족적 화합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긴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조소앙은 일생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해방된 조국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 초기 국무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남한만의 총선거를 거부한 전력으로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그는 사회당을 창당해 반공주의와 다른 노선을 펼치려 했으나 6·25전쟁 당시 남북 당해 실패했다. 조소앙은 북한에서도 적화통일 노선을 거절하고 삼균주의를 통한 통일운동을 펼쳐 탄압을 받았다. 심지어 남북 이후 그는 남한에서 대남간첩으로 낙인 찍혀 결국 그의 이름은 한반도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왜 그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우의 이념 대립과 빈부 격차가 격화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때 통일 독립과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조소앙의 지적 고뇌와 희생적 분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신비한 스포츠 사전

말이 필요없는 매력, 승마

당신은 말을 타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없다'고 답할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닐 뿐더러 '승마' 경험조차 생소하기 때문이다. 승마란 '사람이 말을 타고 부리는 여러 가지 동작 또는 경기'를 의미한다. 과거 승마는 '경기의 의미보다 말 위에서 행하는 '기술'의 의미로 더 잘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날의 승마는 우리에게 스포츠 종목으로 익숙하다. 승마는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경기하는 스포츠다. 그렇기에 말과 기수 모두 선수가 되며, 이 둘의 호흡이 중요하다. 과연 승마에는 어떤 원리가 깃들여 있을까?

먼저 승마의 자세에는 '무게중심'의 원리가 숨어있다. 승마를 할 때 무게중심은 말과 기수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때 말의 무게중심은 말의 심장 부근에 위치하고 기수의 무게중심은 기수가 말 위에 올라탔을 때 배꼽 밑에 위치한다. 기수의 무게중심은 말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는데, 따라서 기수가 말의 무게중심에 가까이 지리할수록 말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기수의 무게중심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 먼저 기수의 다리가 충격을 받는다. 이때의 충격으로 기수의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척추는 구부러진다. 이 경우 인체 구조상 스프링 역할을 하는 척추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결국 기수의 허리에 강한 통증을 일으켜 기수와 말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무게중심을 이뤘다면 이제 '진짜' 말을 타고 움직일 차례다.



이때에는 '원심력'의 원리가 적용된다. 원심력을 견뎌야 승마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원심력이란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곡선주로를 지날 때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곡선 쪽으로 쏠리는 힘을 말한다. 승마의 경우에도 말을 타고 회전할 때 기수는 회전 중심의 바깥쪽으로 힘을 느끼는 원심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기수는 마체(말의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같이 몸을 기울임으로써 원심력을 이겨내야 한다. 초심자는 말에 올라탄 뒤 원 모양으로 걷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심력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기수가 원심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무게중심이 어긋나게 되는데 이는 기수뿐만 아니라 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수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면 마체 역시 방향을 잃고 원 궤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수의 무게중심뿐만 아니라 말의 무게중심까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처럼 기수가 말에 올라타 무게중심을 잡고 원심력을 이겨내기까지에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수와 말은 함께 훈련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교감을 나누게 된다. 이에 대해 김광현(한국마사회) 과장은 "승마는 기수나 말 혼자서 뛰어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닌 기수의 손과 다리의 움직임으로 말과 대화하는 스포츠"라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한성대신문사

제48기

수습기자 모집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지닌 자, 우리는 "기차"입니다.



01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
(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02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03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05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또는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04 모집기간

- 3월 9일(월) ~ 4월 3일(금)



06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 카카오톡 채널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

